

# 국경을 뛰어넘은 하나된 어울림

## 전주 천천클럽,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개최... 13개국 250여 이주근로자 동참

한 달에 천원을 후원하는 사람들 천명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이 완주 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체육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들의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5월 29일 열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잔치'는 네팔,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13개국 250여 외국인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 현대자동차 볼자회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완주 산업단지에는 현대자동차 등 180여 기업체 1만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우리고유의 문화인 제기차기, 단체줄넘기, 과자 따먹기, 제기차기 등의 게임과 오아시스 예술단, 국립국악원, 농악단, 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천천클럽이 개최한 어울림한마당에서 밝은 모습으로 각 놀이대회를 응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국의 노래와 춤, 개인장기를 발휘하며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한 전북 한사랑 봉사단(회장 이성기)은 이날 하루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날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주방기구, 난방기, 밥공기 세트, 기타 생활용품 등 타국 생활에 필요한 선물이 추첨을 통해 한아름 안겨졌다.

특히 천천클럽 회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회원들과 인근주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따뜻한 나라 출신임을 감안해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 천점의 겨울옷과 가방 신발 등을 기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주 천천클럽 오종근 회장은 "고향과 가족의 꿈을 떠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소 꺼려하는 3D직종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타국생활의 시름을 잊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은 완주 송광사, 금산암, 익산 원경사, 우리는 선우, 현대자동차 볼자회, 현대자동차 노조, 샘물교회, 제내교회, 코아루 아파트 부녀회 등의 후원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역사기행으로 쉬운 불교펼쳐”

### 청소년 역사탐방 추진하는 지장 스님



외국의 견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순가정이나 편부, 편모 가정의 불우한 아이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원장학회를 운영하는 지장 스님은 매년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어느 때인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과연 돈의 소중함을 생각하든지 의문을 갖게 됐다. 그래서 스님은 아이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경험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역사 탐방은 장학사업의 새로운 형태인 셈이다.

“장학금보다는 일생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민족의 역사탐방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은 자기민족에 대한 역사인식이 없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역사기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민족이 오랜 기간 살았던 현장을 둘러보고, 민족의 시원이 담긴 백두산을 통해 국가관, 민족관, 애국관을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답사에 참여할 청소년들은 증심사에서 위치한 동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이들 17명을 동구청과 협력해 선발했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여러 가지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청소년 포교를 첫 손에 꼽는다. 90년대 이후 청소년과 청년 불자의 감소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큰 위기로 다가왔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 무등산의 역사 깊은 고찰인 증심사 주지 지장 스님은 이런 문제를 안고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증심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원장학회(이사장 지장)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과 함께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백두산을 탐방하는 '2011 동북아 역사기행'을 떠난다. 이번 역사기행은 중국 집안지역의 광개토태왕릉, 장군총, 5회분5호묘, 환도산성, 국내성을 거쳐 백두산 천지와 비룡폭포, 쌍제자하, 금강대협곡을 둘러보고 종본성과 호산장성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는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 배낭메고 문화유산 찾아요

동원 광주지구(대표 도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호남지역의 사찰과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배낭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를 마련한다.

고창 지역을 답사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5월 14일 진행됐으며 화순지역 운주사, 쌍봉사, 고인돌유적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은 6월 25일 진행된다. 7월에는 군산지역 황토현전적지, 조선세관, 구마모토 농장, 8월에는 장성지역, 9

월에는 강진, 10월에는 순천지역 문화유적을 차례로 답사할 계획이다.

동원 광주지구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 그중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더욱 없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70)8733-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은 '염주'

###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제 개최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故 지광 김동수 열사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다. 지광 김동수 열사 31주기 추모제가 조선대 교정 김동수 열사 추모비 앞에서 5월 27일 봉행됐다.

김 열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봉족위원장 부위원장이면서 대불련 전남지

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시민군으로 마지막까지 도정을 사수하던 중 계엄군에 의해 산화했다. 당시 씩씩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열사의 손에는 염주가 쥐어져 있었다.

지광 김동수 열사 기념 사업회(회장 안상권)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김 열사의 부친인 김영석 옹과 동생 김동제씨, 최이곤 대불



현 동문회 감사, 이인근 대불련 회장 등 조선대 동문들과 대불련 선후배, 광주지역 청년불자들이 참석해 김동수 열사 추모제를 주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화엄불교대학 동문 바자회 열어

전북지역 대표적 신도전문 교육기관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 금산사 주지)을 수료한 동문들이 노년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이

근재)주최로 전주시 경원동 옥성문화회관에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린 바자회에서는 화엄불교대학 기수별로 불교용품과 약초, 장류, 화장품 및 다양한 음식을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이근재 회장은 “2000여만원의 수익금은 금산사 복지원과 서원노인복지관, 화엄불교대학, 전북불교회관을 통해 노인복지기금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심담은 끼와 개성의 무대

### 파라미타 제15회 청소년 모악축제



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모악 청소년 축제'는 파라미타청소년들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행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축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1000여명과 100여명의 지도교사들이 모여 백일장 부분과 사생대회부분, 가사 관심이 높았던 음악놀이 경연 대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늘푸른자원봉사단 장관상 수상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 노인자원봉사단체인 '늘 푸른 자원봉사단'이 6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원노인복지관 회원 30여명이

로 구성된 '늘푸른봉사단'은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관리, 식권판매, 체력 단련실 및 도서관 관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평균 1548시간(450회)의 왕성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경허선사 문하 만옹대선사 문도 법제자 건당식

한국 불교계에 선풍을 일으킨 경허선사(鏡虛禪師)문하 법통을 이어받을 대덕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근세 한국 불교의 중흥호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바로 성우 경허(惺牛 鏡虛)선사께서는

우리불교의 불씨를 되살려 햇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신 큰 스승입니다.

이에 선 법맥을 이어 받으신 손상좌 만옹대선사(萬翁大禪師) 문도에 건당을 하여 법제자 되실

대덕 큰스님들께서 주저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허선사문하 만옹대선사 문도회 회장 현불 합장

- 신청 마감 : 6월 13일 오후 5시
- 자격요건 : 승납 25년 이상 또는 품계 : 대덕이상
- 신청동참금 : 30만원(건당신청서 제출)
- 법제자증명 : 가사(본인지참), 전법계, 법권, 발우
- 문 의 : 02)785-6870 / 041)943-7620
- 회 장 : 010-6478-1569 / 사무총장 010-8900-3050
- 일 시 : 불기 2555년 6월 26일(일요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충북 청원군 쌍이리 산 7-1번지 담화정사

## 대한불교 표암(알평)승가회 제 3차 모임

석가세존의 자비실천을 바탕으로 위국 애민하는 마음으로 호국불교이념을 견지하고 경주이씨 표암 알평공 시조를 기리기 위하여 경주이씨 문중 승려모임을 주창하는 바 뜻이 있는 경주 이씨 성을 지닌 스님께서는 본 승가회에 가입을 환영합니다.

명예회장 만옹 도일, 영공 도성  
회 장 홍산 현불  
사무총장 능인

- 모임일시 : 불기 2555년(2011년) 6월 22일 정오 12시
- 모임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56-20 서심정사
- 동참회비 : 3만원
- 문의전화 : 서 울 02)761-0410, 041)943-7620
- 대 구 053) 325-5288
- 회 장 010-6478-1569
- 사무총장 010-3900-3050

\* 본 승가모임에 동참하실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